

기관 단체

소식

개정 농·수·축협조합정관 확정고시

농림수산부는 지난 2월14일 개정 농수축협조합정관을 확정 고시했다. 개정된 농수축협조합정관은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및 선거절차를 명시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조합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합이 개정 농수축협조합 정관대로 내년 3월 말까지 조합장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농수축협법 시행 개시일인 4월1일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모든 조합도 개정된 정관에 따라 선거를 치르게 된다.

대한양돈협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양돈협회(회장 전동용)은 지난 2월2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장선출에서는 민주화 흐름에 따라 회장선출 방법을 전형위원제도에서 직선제로 바꾸어 선출했는데 전동용 회장이 재선출되었다.

금년 예산안은 지난해 보다 24.4% 증가한 9억9천3

백76만원을 승인했다. 또한 양돈사료를 분석·검토하여 배합사료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회원농장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사료분석실을 운영키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축산물의 수입개방과 양돈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축산법 개정과 부가세 면세 및 자조금제도 실현 등 새로운 양돈산업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결의문 채택을 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정기총회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월27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88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접수하고 '89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심의 의결 시켰다.

임원선출에서는 회장에 이윤우씨(신촌목장), 부회장에 강춘성씨(경남낙우회장)윤수철씨(전주, 완주낙우회장), 감사에 박인철씨, 박병규씨가 각각 선출되었다.

축협 정기총회 개최

축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월24일 정기총회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하고 축산기반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161개 지역 및 업종축협 조합장들은 국산 공산품 수출증대 대가로 축산물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어 1백만 양축농가와 축산업이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양축농민은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나라 축산기반을 유지,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종축개량협회 정기총회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송찬원)은 지난 2월28일 8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88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89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의결시켰다.

한편 등록회비는 '8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감안할 때 수입에 대비한 국내 사육기반 안정구축과 종돈은 불안정한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인상조정이 불가능하다 하였다. 따라서 적소에 한하여 등록회비와 산유능력검정 회비를 인상키로 했다.

한편 강수영(상청농원)씨와 신언익(축협유우개발사업소장)씨가 감사에 선출되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정기총회 연기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2월2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결산보고(안) 및 정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유대인상 후 총회를 재소집하자는 조합총대들의 의견에 의해 3월2일 이후로 유보키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낙농가들의 생존권수호 차원에서 촉구하고 있는 유대인상이 해결되지 않아 조합원이 도산지경에 도달한 상태에서는 조합운영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연기되었다.

또한 2월말까지 유대인상을 시키지 못하면 조합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89년도 가축방역사업 예산 27억원

농림수산부는 금년도 가축방역사업에 27억4천6백14만2천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가축방역사업 예산은 국비 18억여원, 지방비 6억여원 등 총당된다.

사업별 투입예산은 예방주사 12억5천만원, 검진 6억6천만원, 진단액 구입 6천4백만원, 기생충 구제 2억1천만원, 혈청검사사업 9천4백만원, 살처분보상 3억8천만원 등이다.

전북양계협동조합 정기총회

전북양계협동조합(조합장 이기동)은 지난 2월27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88년도 사업보고에 이어 '8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심의 의결시켰다. 양계조합의 '89년도 추경예산규모는 총수익 68억1천7백76만5천원, 총비용 68억4백45만3천원으로 순이익 1천3백31만2천원으로 추정했다.

앞으로 전라북도 전양계업자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위하여 체계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전양계업자의 사업을 조합중심체제로 확립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한 계산물의 계통생산 출하체제의 정착과 사료, 병아리 등의 공동구매로 생산자가 모든 양계관련산업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국농민운동연합 결성

농민운동단체들의 전국통합조직인 전국농민운동연합(전농련)이 3월1일 발족했다.

그동안 농민운동은 카톨릭농민회와 기독교농민회 등 종교단체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 등 소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었다. 지난해부터는 수세거부, 고추수매시위 등을 거치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일전선구축을 절감하여 전농련을 결성하였다.

이날 전농련은 농축산물수입개방저지, 농민관계조합의 민주화, 농가부채해결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쇠고기 위생검사 촉구

—한국부인회—

한국부인회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에서 수입쇠고기에 대한 잔류물질을 검사해 이상이 있을 때는 판매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해 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수입되고 있는 식육에 대해서는 육류수입위생조건에 합당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출국에서 검사를 행하여 질병에 걸렸거나 폐사한 것이 아니라는 요지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시키고 있다.

오제스키병 살처분 20%보상

—양돈협회 이천시지부에서 지급키로—

대한양돈협회 이천시지부(지부장 박용각)은 지난 2월21일 오제스키질병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방어사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오제스키병 양성돈 살처분시 80%를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것에 지부에서 20%를 지급하여 피해농가가 100%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천시역에서라도 오제스키병을 막아보자는 의도에서 실시한 사업은 양돈업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오제스키병 방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각 농장에서 기금을 모으기로 했다.

기획포착



양분추종

3월15일부터 본격 분양

품종: 마니나갈색
하이라인갈색

유림상사

☎ (0418) 6-3002